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마음 좀 쉬러 왔습니다”

※ 이 사례는 권나는 부산 온천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온천중은 상담교실인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중 Wee클래스는 'Wee클래스는 문제 학생만 가는 곳' 또는 '상담교사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Wee클래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OX 퀴즈대회'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등 심각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교장 등으로 이뤄진 '자문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지요. 이런 상담 사례들 덕분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제7회 Wee 희망대상'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특명! Wee클래스의 문턱을 낮춰라

많은 학생들은 Wee클래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Wee클래스를 찾아와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고 말해도 그 인식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지요.

이에 Wee클래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OX 퀴즈대회'가 대표적입니다.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우울함은 나만 겪는 것이다' 등 간단한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이면 사탕·초콜릿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퀴즈를 풀며 우울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님을, 힘들면 언제든지 Wee클래스에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교사에게 Wee클래스로 심부름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생이 심부름을 오면 '온 김에 힘든 일은 없는지 얘기해보라'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유도하기 위해서지요.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중앙현관에는 방탄소년단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과 함께 'Wee클래스에 놀러와'라고 적어뒀습니다.

그러자 자발적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이미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Wee클래스를 찾던 학생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 Wee클래스를 찾기 시작했지요. 친구와 싸운 뒤에 '이제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제 인사를 갑자기 안 받아주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온천중 학생들은 "마음 좀 쉬러 왔습니다"고 말하며 웃으며 Wee클래스를 찾고 있습니다.

### 어디나 Wee클래스, 누구나 상담교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을

위해선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전 교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에 중대한 문제 상황에 대해선 여러 교사가 모인 '자문단'이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따돌림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담교사가 '비밀 보장'을 전제로 각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담임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모둠 구성에 보다 신경 쓰고, 생활지도부장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교장선생님은 학생을 불러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담교사 역시 학생과 꾸준히 상담을 진행하지요. 이렇게 여러 교사가 학생을 지지하면 학생은 큰 힘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도 훨씬 빨리 이뤄지지요. 이는 학생을 아끼는 전 교원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마음 성장을 위해 힘쓰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우리학교 연구모임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경남 마산서중 수업 연구회 수·다·나 학생이 주인인 수업, 교사 손으로 만든다



PBL 수업 개발을 위해 토론 중인 수·다·나 교사들. 마산서중 제공

경남 마산서중에는 14명의 교사가 모여 만든 수업 연구회 ‘수·다·나’가 있다. ‘수업을 다함께 나누는 친구’라는 뜻의 수·다·나는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PBL(Problem Based Learning·문제기반학습)’ 수업을 개발하는 수업혁신 연구회. 수·다·나를 이끄는 김운화 마산서중 수석교사로부터 연구회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 혁신 수업 알리는 데서 시작

PBL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중심이 되는 수업.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던져주고 이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에겐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이에 수·다·나 교사들은 변화하는 수업에 대한 공감의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학기 초에는 가정통신문으로 PBL 수업의 정의 및 필요성, 운영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해 알리고, 학기 중에는 공개수업을 열며 학부모가 수업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것.

사실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위해선 교사의 수업 연구·개발이 필수다. 이에 수·다·나 교사들은 매달 ‘수다나날’을 열고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구성 과정을 거쳐 PBL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냈다.

수업이 개발됐다고 끝이 아니다. 수업을 마칠 때마다 작성하는 ‘수업성찰 일기장’을 통해 개선점까지 찾아낸 것. 너무 쉽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은 어디이며 어떤 부분을 가장 흥미로워하는지, 어떤 학생이 조금 뒤쳐졌는지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여 조금씩 개선해나갔다. 김운화 수석교사는 “동아리 소속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릴레이 수업나눔’도 실시하며 수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코티칭·팀티칭으로 수업 효과 200%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다·나 교사들이 뭉치기도 했다. 2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끄는 ‘코티칭’이 대표적. PBL 수업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1명의 교사만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에 2명의 교사가 한 수업을 공동으로 이끈 것.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질문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팀티칭’도 그 효과가 남달랐다. 팀티칭은 공통의 주제를 하나 정한 뒤 서로 다른 각각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주제에 대해 진행하는 수업. 예를 들어 ‘지구’라는 주제에 대해 △고문서 속의 지구 모양 알아보기(한문) △세계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활용해 지구 소개하기(사회) △지구 내부 모형 피자 만들기(과학)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 토론하기(국어) 등의 수업을 하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각 교과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mailto:jiyeon01@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mailto: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